

석사학위논문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지도교수 김 양 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 교육 전공

김 경 희

2000년 8월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지도교수 김 양 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출자 김 경 희

김경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0년 7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김 경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양 순

가족의 구조와 역할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아동들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타인에 대하여 배려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 사회적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부모가 실시하는 훈육방식에 따라서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연구들이 일관성이 있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에서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타인의 입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데 있다. 그리고 아동의 개인 내적 요인인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서 부모의 훈육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아동이 친 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동을 지도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제주도 3개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306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test, 일원분산분석, 던컨의 다중범위검증 등의 분석방법이 이용되었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법으로 검증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훈육방식에서 권력주장 방식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 훈육담당자에서 그리고 설득 방식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부모의 교육수준 및 주거형태에서, 애정철회 방식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 부모의 직업, 소득 및 종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연령에서는 권력주장과 설득 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45세 이하 집단이 46세 이상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애정철회 방식에서는 40세 이하 집단이 46세 이상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40세 이하의 어머니들이 애정철회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서는 설득 방식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고졸이상 집단이 중졸이하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설득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는 권력주장과 설득 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권력주장 방식에서는 대졸이상 집단이 중졸이하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설득 방식에서는 고졸이상 집단이 중졸이하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권력주장과 설득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주거형태에서는 설득 방식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파트에 사는 집단이 단독이나 연립 및 빌라 주택에 사는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나 아파트에 사는 부모가 설득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훈육담당자에서는 권력주장 방식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녀를 훈육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권력주장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훈육방식은 아동의 성별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출생순위에서는 권력주장과 설득 및 애정철회 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첫째와 둘째인 집단이 셋째이후의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친 사회적 행동은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는 권력주장과 설득 및 애정철회 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권력주장 방식에서는 상 집단이 중 이하 집단보다, 설득 방식에서는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애정철회 방식에서는 하 집단이 중 이상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권력주장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아동들보다 친 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득 방식에서도 부모가 설득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아동들보다 친 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애정철회 방식에서는 부모가 애정철회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하지 않는 집단의 아동들이 친 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부모의 훈육방식에서 애정철회 방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4
1. 부모의 훈육방식	4
1) 훈육의 개념	4
2) 훈육방식 유형	5
2. 친 사회적 행동	10
1) 친 사회적 행동의 개념	10
2) 친 사회적 행동 발달	12
3.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8
III. 연구방법	22
1. 연구대상	22
2. 측정도구	22
1) 부모의 훈육방식	22
2)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	23
3. 연구 절차	23
4. 자료분석	24
IV. 연구결과 및 해석	25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25

2.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훈육방식	27
3.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훈육방식	29
4.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	31
5.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친 사회적 행동	32
6.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33
 V. 결론 및 제언	 35
 참고문헌	 38
Abstract	43
부 록 : 설문지	46



표 목 차

〈표 1〉 부모의 훈육방식 측정 문항 구성	23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26
〈표 3〉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훈육방식	28
〈표 4〉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훈육방식	30
〈표 5〉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	31
〈표 6〉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친 사회적 행동	32
〈표 7〉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3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며 더불어 사는 방법을 익혀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환경은 한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정환경은 중요한 교육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조와 역할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아동들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아동기의 사회성발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를 훈육할 때 성숙한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은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보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친 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이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위한 의도를 지닌 행동의 결과를 총칭하는 말로서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을 말하며 돕기, 나누기, 배려하기, 협동하기 영역이 이에 해당한다.¹⁾

친 사회적 행동의 발달과 증진은 아동의 사회화과정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며 이 과정에서 부모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화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동일시와 모방의 대상이 되므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가치관과 사회적인 행동양식을 습득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 타인과의 관계를

1) 권연희(1995),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1.

유지하기보다는 전자기기와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사회에서 아동들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다 더 친 사회적 방향으로 성장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에서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친 사회적 행동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개인 내적 요인인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훈육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친 사회적 행동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아동들을 친 사회적인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훈육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라서 부모의 훈육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라서 친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부모의 훈육방식에 따라서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 대상 표집이 제주시 초등학교 3개교 5, 6학년 학생에 국한되어 있으며 검사도구가 직접 관찰과 면접에 의한 것이 아닌 질문지법으로서 실제 양육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부모의 훈육방식

1) 훈육의 개념

부모는 아동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가치관, 규범, 사회적 역할 및 행동양식 등을 습득하게 하며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Aronfreed에 의하면 훈육이란 자녀에게 외적 통제를 행하는 것으로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모두 포함하였다. 신체적 체벌, 언성을 높이는 것, 꾸지람 외에 보상, 칭찬, 격려 등이 자녀 훈육에 사용된다고 하였다.²⁾

Hurlock(1964)³⁾은 건전한 훈육이란 “아동에게 세상은 질서 있는 방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어떤 행동에 벌이 따른다는 것과 적당한 정도의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며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자기훈육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훈육은 필요한 경우에 아동의 행동을 제한하면서 사회적 가치관과 규범을 가르치는 능동적인 행위로 교육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통제의 기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Breckenridge & Vincent(1965)⁴⁾는 “훈육이란 아동을 억압하거나 아동의 감정을 무시하고 폭발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아동이 자신의 세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점차 자기통제를 할 수 있고 사회화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2) 정은경(1996),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도덕판단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p 4.

3) 이봉선(1988),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도덕판단력 및 그 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p.6.

4) 이두현(1999),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감성지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p 7

훈육은 긍정적인 개념과 부정적인 개념이 있는데 긍정적인 개념은 자기훈련(self-discipline)과 자기통제(self-control)를 강조하는 것이며 부정적인 개념은 외적인 권위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훈육은 아동의 감정을 자유롭게 반영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창의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녀들의 바람직한 태도를 습관화시켜서 자신의 문제를 융통성 있게 해결하며 건전한 인격형성을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훈육이란 그 사회문화가 요구하는 가치체계를 아동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와 동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훈육이란 성장하고 있는 아동을 원만하고 바람직하게 발달시켜 건강한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사회화 과정이라고 요약 할 수 있다.

2) 훈육방식 유형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은 필요에 따라서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부모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부모의 훈육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는 유형과 차원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Maccoby와 Martin, Baumrind⁵⁾는 아동을 훈육하는 부모의 유형을 권위적 부모, 허용적 부모, 독재적 부모, 방임적 부모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권위적 부모는 아동 중심적이며 아동의 욕구와 소망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그들은 아동이 성숙한 행동을 하기 위한 확고한 표준과 규칙을 설정하여 자녀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하며 의사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고 아동의 견해에 귀를 기울인다. 권위적 부모의 자녀들은 자주적이고 자기 통제적이며 유능하고 우호적이며 온순하다.

권위적인 태도는 독재적인 태도와는 다른 의미로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우면서 자녀로 하여금 수용하도록 하고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훈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⁶⁾

5) 이영자(1990), "부모의 훈육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동기와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p.6.

6) 이은하·김영옥(1999),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동문사, p.54

허용적 부모는 애정적이고 반응적이며 수용적이지만 아동의 행동을 거의 통제하지 않으며 가능하면 제한을 가하지 않고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취침시간, 식사시간, 그리고 TV시청시간도 아동이 결정하도록 하는데 허용적 부모의 자녀들은 충동적이며 공격적이고 자신감과 책임감이 부족하다.

독재적 부모는 자신의 요구와 아동의 욕구 사이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아동의 욕구표현을 제한하고 규칙이나 의사결정을 아동과 전혀 의논하지 않으며 부모권위에 도전하는 아동을 억압하기도 하고 신체적 처벌을 가하고 거칠게 비난하기도 한다. 독재적 부모의 자녀들은 사회적 능력과 자발성이 부족하고 냉정하며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방임적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아동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아동의 욕구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일관성 있는 지도나 훈육을 하지 않는다. 자녀와의 접촉은 단지 부모 자신의 즉각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방임적 부모의 자녀들은 적대적이며 공격적이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으며 타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으며 청소년으로 성장하면 과도한 음주나 비행을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⁷⁾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처벌이나 거부는 부적절한 행동을 조절하기보다는 공포나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동기 및 이에 대하여 부모에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훈육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eahy(1981)는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존중이나 권위적 훈육방식이 도덕적 판단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권위지향적인 부모는 아동에게 맹목적인 존중을 강요하고 반대로 비권위적인 부모는 아동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가족 내에서 참여를 허락함으로써 아동의 도덕적 판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W. C. Becker는 부모의 훈육은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훈육을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제한-허용(restrictiveness-permissiveness)의 차원에서 제한은 금지나 통제가 많은 훈육으로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 엄격하고 강제적이며 아동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동을 꾸짖고 때리기도 한다. 허용적 부모의 행동은 제

7) 이영자(1990), 전계논문, pp6~7

한적 행동과 반대이다.

온정-적대(warmth-hostility)의 차원에서 온정은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설명과 왜 그 행동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훈육으로 온화함과 처벌 사용이 적은 경우의 부모행동을 포함하며 적대는 온정의 반대 행위이다.

지나친 정서개입-냉담한 분리(anxious emotional involvement-calm detachment)의 차원에서 지나친 정서개입은 부모가 아동의 응석을 받아주며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것이며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 지나치게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냉담한 분리의 차원은 그 반대행위로 나타난다고 하였다.⁸⁾

Hoffman과 Saltzstein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모의 훈육방식을 권력주장과 애정철회 그리고 설득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권력주장(power assertion) 방식은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통제하기 위하여 성인의 권력과 벌에 대한 아동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통제방법이다 신체적 처벌이나 비웃기 또는 소리치기 때로는 어떤 특전이나 재원을 제거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강압적이고 손상적인 벌의 유형뿐만 아니라 인격 손상인 처벌 유형도 포함된다.

힘이나 물리적인 처벌을 사용하고 힘으로 위협하는 등 권력주장 방식을 사용하는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화 잘 내고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아이들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공감적이지도 못하고 도덕가치를 내면화시키지도 못하며 일관성 있는 양심을 발달시키지도 못한다. 이런 아동들에게는 단지 발각된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외재적 도덕지향이 발달한다.⁹⁾

둘째, 애정철회(love withdrawal) 방식은 통제시도로서 애정철회를 사용하는 부모는 직접적이고도 비신체적인 방법으로 문제행동에 대한 불승인을 나타낸다. 즉 부모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아동에게 노여움이나 실망 혹은 불인정을 표현하며 의사소통을 거절하는 것이다. 또한 밖으로 나가거나 몸을 돌림으로써 거부 의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아동을 고립시키거나 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한다. 이러한 애정철회 방식은 때리기 혹은 소리치기 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처벌적인 훈육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부모에 대한 아동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조작하는 것으로 부모의 사랑과 그 사랑이 제공하는 안전으로부터 아동을 단절시키는 하나의 위협이다. 또한

8) 성은경(1996), 전제논문, pp 33, 7~8,

9) Daniel K Lapsley, 문용린 역(2000), 「도덕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p.306

아동으로 하여금 상당한 분노와 죄책감을 유발하도록 한다.

셋째, 설득(induction) 방식은 아동이 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관점에 기초를 둔 훈육방식이다.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도록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고무시키는 통제방법으로 부모는 왜 그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가에 대한 설명을 한다. 즉 그 상황의 물리적 요구조건이나 아동의 행위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는 행위로서 가장 바람직한 훈육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¹⁰⁾

이상의 이론적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의 훈육방식이란 아동이 자신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훈육방식은 부모의 성격과 태도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원만한 사회화를 위해서는 발달정도에 따른 훈육방식과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Hoffman과 Saltzstein이 구분한 부모의 훈육유형과 Maccoby와 Martin의 훈육방식을 선택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주장 방식은 아동에게 강한 적개심을 일으키고 동시에 그 적개심을 밖으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모델과 적합한 대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비효과적인 훈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애정에 대한 아동의 욕구를 감퇴시키고 성인의 권위와 처벌적인 반응에만 민감하게 할뿐이다. 특히 아동에게서 공격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권력주장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연차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방임적 방식은 아동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며 제한을 두지도 않는다. 부모로서 역할수행을 하지 않으며 아동의 욕구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일관성 있는 훈육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방임과 유사한 애정철회 방식은 부모가 아동에게 문제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어떠한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인가에 대한 제시도 해주지 않는다. 아동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애정철회 방식에 포함될 수 있다. 애정철회 방식은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며 사회화 대행자로서 부모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을

10) Daniel K Lapsley(2000), *op. cit.*, p307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애정철회 부모의 자녀들은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으며 타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셋째, 설득 방식은 아동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직접 제시해 준다. 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훈육으로서 아동이 행한 행동의 결과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설득적으로 훈육하는 부모는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아동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제의 부여는 자존감(self-esteem)의 손상 없이 부모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동에게 비차별적이고 설명적인 위력을 가지고 아동에게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를 두고 설명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 스스로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기대를 전달함으로써 자기통제기능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이와 같이 아동들은 매우 활동적이고 자율적인 동시에 부모의 훈육방식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친 사회적 행동

1) 친 사회적 행동의 개념

친 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마다 이론적 입장에 따라 다소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친 사회적 행동의 요소와 본질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친 사회적 행동이란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타인을 직접 돕거나 또는 도우려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Floody(1980)¹¹⁾는 친 사회적 행동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는 행동(반사회적 행동)과 반대되는 것으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상호작용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Penner & Frinkelstein(1998)은 친 사회적 행동이란 지속적으로 타인의 이익과 복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감정이입과 관심을 느끼고 그들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¹²⁾

Bar-Tal(1976)¹³⁾은 친 사회적 행동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동으로서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친 사회적 행동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한 행동자체의 목적 때문에 보상의 기대나 의무감 없이 행해지는 이타행동(altruism)이며 다른 하나는 손해를 입혔거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나타나는 상환행동(restitution)이라고 하였다.

Walsh(1980)는 친 사회적 행동이란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오는 건설적인 사회적 행동(constructive social behavior)이라고 하였으며 Mussen과 Eisenberg(1977)은 외적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이익을 주거나 도와주는 행동이라고 하였다¹⁴⁾ 친 사회적 행

11) 남정태(1995),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8.

12) Nancy Eisenberg et al(1999), “Consistency and Development of Prosocial Disposition: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Vol.70, No.6, p.1360.

13) 이신희(199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 사회적 행동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p.8

14) 양진숙(1991),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석

동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며 자신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며 그들과 협동하고 도움을 줌으로서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며 타인의 외모와 성취를 칭찬함으로써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친 사회적 행동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타행동(altruism)을 들 수 있는데 이타행동이란 어떠한 형내의 보수를 받는다는 기대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Bryan과 London¹⁵⁾은 이를 유익하지만 물질적으로나 사회적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높은 부담마저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Eisenberg & Fabes(1998)¹⁶⁾는 이타행동이란 본질적인 동기부여로서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자발적인 행동경향이라고 하였다. Shaffer(1979)¹⁷⁾는 이타행동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돕는 사람의 우선적인 관심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때 돕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이타행동은 친 사회적 행동과 유사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reedman, Carlsmith, Sears는 친 사회적 행동과 이타행동을 구별하여 설명하였는데 이타행동이란 “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도와주려는 행동으로 타인에게 혜택을 주는 선의의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¹⁸⁾ Eisenberg과 Mussen, 서봉연은 친 사회적 행동과 이타행동을 혼용하여 설명하였는데 친 사회적 행동이란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로서 도와주기(helping), 협동(cooperation), 교환(exchange)을 포함하는 넓은 범주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와주기는 의무감, 부채감, 타인의 기대에 부응, 외적보상 기대, 순수한 이타심과 같은 여러 동기에 의해 수행된다고 가정하였다. 서봉연(1985)은 친 사회적 행동의 유형을 도와주기(helping), 나눠주기(sharing), 위로하기(comforting), 기부하기(donating), 구조하기(rescuing)등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⁹⁾

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32

15) 양진숙(1991), 전제논문, p.33

16) Nancy Eisenberg et al(1999), *op. cit.*, p.1360.

17) Waxler, C.Z., M.R.Yarrow, and R.A. King (1979), "Child Rearing and Children's Prosocial Initiations toward Victims of Distress", *Child Development*: 노원주((1989), "부와 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p.1에서 재인용.

18) 권연희(1995), 전제논문, p.7.

19) 이순복(199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p.9

친 사회적 행동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하여 Walsh는 관대함(generosity), 나누는것(sharing), 자선(charity), 돕기(helping), 동정심(sympathy), 위안(comforting) 등을 들고 있으며 Bar-Tal은 그 외에 협력(cooperating), 친절(kindness), 이타성(altruism) 등을 들고 있다.²⁰⁾

친 사회적 행동과 이타행동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친 사회적 행동은 외적·내적 보상에 기대를 하든 하지 않든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고 이타 행동은 타인을 이롭게 해주기 위해서 보상이나 의무감 없이 행해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친 사회적 행동과 이타행동을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타행동이 질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친 사회적 행동이란 결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2) 친 사회적 행동 발달

인간에게 있어 친 사회적 행동은 영아기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유아들이 어떻게 친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고 발달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의 이론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친 사회적 행동의 발달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Freud학파의 정신분석 이론(Psychoanalytic Theory)과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Cognitive Development Theory) 그리고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Learning Theory)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신분석 이론은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인 것으로 보고 타인의 감정과 요구를 고려하는 친 사회적 행동은 초자아가 발달 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Freud²¹⁾는 5~6세가 되면 외디프스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초자아를 발달시키게 되고 죄의식을 느낄 수 있게 되므로 이 무렵의 유아들은 벌받는 것은 피하려고 친 사회적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Honig(1982)도 Freud와 마찬가지로 영아나 유아들은 타인의 감정과 요구에 상관

20) 양진숙(1991), 전개논문, p.34.

21) 김정희외 2인(1998), 「아동발달심리」, 동문 출판사, pp 287~288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즉각 주장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같은 친 사회적 행동은 초자아가 발달할 때까지는 가능하지 않지만 5~6세 정도의 유아는 성인의 친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친 사회적 행동을 내면화 해간다고 하였다.²²⁾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유아들이 외디프스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자아가 발달하면서 친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인지발달이론의 관점에서는 친 사회적 행동은 Piaget와 Kohlberg의 도덕성 추론발달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Piaget는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첫째, 전 조작기(7세미만)의 아동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고 쾌락동기에 반응하여 자신이 바라는 외적결과를 얻을 때만 친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다

둘째, 구체적 조작기(7~12세)의 아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타인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친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셋째, 형식적 조작기의 아동은 도덕적 공정성에 관한 보편원리("타인이 내가하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한다")에 의해서 친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²³⁾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을 단순한 자극-반응의 결과로서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외계의 자극요소를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며 의미 있게 개념화해 나가는 것을 인지발달의 정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요구와 견해 그리고 역할 등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기고 타인의 요구를 해석함으로써 친 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²⁴⁾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은 Kohlberg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는데 도덕성 발달이 초기에는 외부적인 통제에 의한 보편적 도덕성에서 점차 자율적 통제의 도덕성으로 이행한다고 하였다. 그는 도덕성의 발달과 친 사회적 행동간의 상호관련성을 설명하였으며 아동은 친 사회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도덕발달 수준에 도달

22) 노원주(1989), "부와 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11.

23) 김정희 외2인(1998), 전게서, pp 289~290.

24) 문혜정(1995), "유아의 성별, 형제유무,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pp.10~11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ohlberg는 도덕성 발달과정을 세 수준으로 나누었고 각 수준에 다시 각각의 하위단계를 포함시켰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준 1 : 전 인습적 도덕성(Preconventional morality) 수준으로 이에 속하는 7세 이전의 아동은 도덕적 규칙이나 선악의 개념은 알고 있으나 내적 준거에 의하여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외적준거에 의하여 판단한다.

1단계는 처벌과 복종지향의 단계로서 이 시기에 속하는 4~5세의 아동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은 권력을 가진 자로부터 물리적 압력이나 신체적 벌을 피함으로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벌이나 권위에 내재해 있는 의미나 가치는 중요하지 않으며 행위의 물리적 결과에 의하여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위반행위의 중요성은 처벌의 양과 객관적인 손상의 양에 의해 결정한다.

2단계는 도구적 상대주의 지향의 단계로서 이 시기에 속하는 5~7세의 아동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란 자신이나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도구적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이다. 올바른 행위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욕구도 충족시켜 공평하게 서로 주고받음으로서 혜택을 같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만일 네가 나를 도와준다면 나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기본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수준 2 : 인습적 도덕성(Conventional morality) 수준으로 7~10세의 아동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사회지향적 도덕성으로 발전하게 되는 수준으로 가정이나 집단 혹은 국가의 기대에 따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3단계는 조화로운 대인관계 및 개인상호간의 동조의 단계로서 이 시기에 속하는 7~9세의 아동은 사회적 조화를 중요시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기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여긴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 도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물리적인 힘보다 심리적 인정여부에 관심이 있으며 착한 행동을 함으로서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 하는 단계이다. 신뢰, 충성, 존경, 감사, 상호관계의 유지 등을 존중한다.

4단계는 법과 질서지향의 단계로서 8~10세 시기의 아동은 법과 질서는 지혜를 성문화한 것이고 사회를 안정성 있고 응집력 있게 만들어 주며 모든 시민에게 행위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

인다. 사회, 집단, 제도에 공헌하는 것이 선이라고 여기는 단계이다.

수준 3 : 후 인습적 도덕성(Postconventional morality) 수준으로 10세 이후의 아동은 점차 가장 진보된 수준의 도덕적 행동을 하는 시기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은 사회의 법 자체보다 내면화된 내적인 준거와 인간으로서의 기본 원리에 따른다.

5단계는 사회계약과 합법적 저항을 추구하는 시기로서 10~13세 아동은 약속이란 사회적인 유용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로 합의에 도달할 때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융통성을 갖는 단계이다. 생명과 자유와 같은 비 상대적인 가치는 어떤 사회에서도 다수의 의견과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계이다.

6단계는 보편적 윤리적 원리지향을 추구하는 시기로서 13세 이후의 도덕성이란 자신이 선택한 윤리적 원리와 일치하는 양심의 결단에 따라 행동하지만 원리와 충돌할 때는 자신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한다. 즉 인권평등과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이는 계약이나 규정을 초월한 인간의 존엄성·정의·사랑·공정성에 근거를 둔 행동지침이다²⁵⁾ Kohlberg의 도덕성의 발달은 각각의 단계를 걸치면서 점차 성숙해지고 친 사회적 행동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Bandura(1977)²⁶⁾를 중심으로 한 사회학습 이론은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아동은 기초반사를 제외하고는 행동목록을 갖추고 태어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새로운 행동 유형은 직접적 경험이나 관찰에 의해 학습된다고 하였다. Rushton(1976)은 7~11세 아동에게 성인 모델이 볼링게임을 한 후 상금 중 일부를 불우아동 모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보여 준 후 모델을 본 아동들이 모델을 보지 못한 아동보다 많은 기부를 했으며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측정을 하였을 때에도 기부하는데 차이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²⁷⁾ 이와 같이 모델은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을 규정하는 규범을 기억하게 하여 그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모델은 특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은 모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어떠한 행동이 그 상황에 적합한 행동인가에 대하여 알게 된다.

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아동은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한 기대를 근거로 도덕적 친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외적보상에 대한 기대와 내적 보상에

25) 이옥형(1997), 아동발달, 집문당, P277-281

26) 노원주(1989), 전개논문, p11

27) 김정희 외2인, 전개서, p.289

대한 기대가 모두 작용한다고 하였다. 즉 아동은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 등의 외적 보상도 고려하지만 이와 더불어 그 행동을 수행하였을 때의 자기 만족감이나 죄책감 등의 내적 보상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보다 중요한 결정인자는 아동의 내적 도덕적 기준으로서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하여 어떤 경우에 자신이 친 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규칙성을 찾아내는데 이렇게 찾아낸 규칙성들을 종합해서 아동은 자신의 개인적 행동기준이라는 형태로 내면화시키게 된다고 설명하였다.²⁸⁾

아동의 내적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은 언어적 지시로서(부모가 친 사회적 행동을 권장하거나 설명하는 경우) 본보기 인물과의 접촉으로서 중요한 인물 또는 타인이 친 사회적 행동을 하고 강화 받는 것을 관찰했는지 아닌 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훈육 경험으로서 아동이 이타행동을 하고 보상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의 여부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습이론의 내면화 과정에서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험은 부모나 교사로부터 받은 언어적 교육과 사회적 모델을 통한 관찰 학습에서의 사회학습 경험이라고 하였다. 또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고 지적으로 보다 성숙해 감에 따라 좀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학습 경험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친 사회적 행동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²⁹⁾

친 사회적 행동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Bar-Tal(1980)은 도움행동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나눠주기 행동동기가 어떻게 발달단계로 진보하는지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나눠주기 행동의 동기수준이 도움행동의 발달단계수준과 동일하게 진보하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그가 제시한 친 사회적 행동을 여섯 단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1단계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강화에 의한 승낙(compliance with concrete defined reinforcement)으로서 이 시기의 아동은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도움행동을 실행하나 분명한 구체적 보상이 약속되거나 또는 벌의 위협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 이 단계의 도움행동은 사실상 교환행위이며 조망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이므로 타인이 자신들과 다르게 생각하거나 느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다.

28) 남정태(1995), 전 계논문, p.11

29) 양진숙(1991), 전 계논문, p.37~38.

제 2단계는 순종(compliance)의 단계로서 도움행동에 대한 동기가 권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으로 도움행동을 스스로 주도하지 못하고 자신들보다 힘이 우세한 타인의 명령이나 요청에 복종하는 것이다. 타인이 자신들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강화는 필요하지 않으며 타인의 요청이나 명령에 따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단계이다.

제 3단계는 구체적 보상에 대한 내면적인 주도성(internal initiative with concrete reward)을 가지게 되는 시기로서 아동은 자발적으로 도움행동을 수행하지만 그 대가로 명백하고 구체적인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강화를 바라는 것이 동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지만 타인의 요구는 이해할 수 있다.

제 4단계는 규범적 행동(normative behavior)을 하게 되는 단계인데 아동이 도움행동을 수행하는 동기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아동들은 순종해야 할 행동규범을 인식하고 있으며 규범에 대한 순종은 긍정적인 인정을 얻지만 규범의 위반은 부정적 제재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동은 타인을 돕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도록 자신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어려움에 처한 타인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으며 공감적 고통도 느끼지만 그 도움행동을 동기화 하는 요소로까지 진전되지는 않는다.

제 5단계는 진보화된 상호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을 나타내게 되는 시기로서 도움행동은 보편적인 교환원리의 영향을 받는데 아동은 도움행동을 조정하는 규칙적인 체계를 인식하고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보답으로 타인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타인을 도와주게 된다. 따라서 도움행동의 수행은 상호적인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보상이 확정되거나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제 6단계는 이타적 행동(altruism)을 하는 시기로서 이타적 행동은 4~6세 경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9~10세 경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아동은 도움행동을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한 동기 이외의 다른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정의에 대한 도덕적인 확신으로부터 나온 이타적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 아동의 도움행동은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은 타인의 요구를 평가할 수도 있고 그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으며 곤경에 처할 때 동정적인 고통을 느끼며 타인의 복리에도 관심을 갖는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지

만 도움행동을 수행한 결과 자존심과 자기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³⁰⁾ Bar-Tal 은 도움행동의 발달단계를 걸치면서 이타행동을 하게되고 친 사회적 행동으로 점점 발달해 나간다고 설명하였다.

이론적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각 이론들은 서로 조금씩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분석이론은 친 사회적 행동의 정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성부모의 동일시에서 근원을 찾으려 하는데 반해 인지발달 이론은 사고, 동기, 판단, 역할수용에 의미를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학습 이론은 강화나 본보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이론적 입장은 초등학교 아동이 저 학년의 경우에는 자기중심적이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인지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적 경험이 다양해지면서 타인에게 친 사회적 행동을 하게된다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도덕성발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0) 양진숙(1991), 전개논문, pp 38~39

3.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부모가 아동을 훈육하는 방식은 타인에 대한 아동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아동자신의 친 사회적 경향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모의 훈육방식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으며 현대의 심리학자들도 부모의 훈육방식이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 학습에 주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Hoffman(1975)은 아동의 이타행동과 부모 자녀관계를 연구했는데 부모의 권력주장 방식은 아동이 타인을 생각하는 정도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쳤으며 설득 방식을 사용할 때 아동은 타인에 대하여 사려 깊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Staub(1975)에 의하면 유아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부모는 유아의 욕구에 신속하게 반응함으로써 유아로 하여금 자기중심을 감소시키고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며 정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³¹⁾

Mussen(1974)³²⁾은 부모양육태도가 온정적이며 허용적일 때 자녀는 활동적이며 사회생활에 단호한 태도를 가지게되며 온정적이고 엄격할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유순한 태도를 가지며 규칙을 준수하고 순종적이며 공손하고 단정하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이며 제한적일 때 자녀는 자기에 대한 공격성과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면과 내면적 갈등의 증상이 커진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이고 허용적일 경우에 자녀는 공격적이고 조절하지 못한 행동이 커지게 된다고 하였다. Becker(1964)는 온정과 허용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였을 때 자녀는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³³⁾

김지신(1985)³⁴⁾은 6세와 8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감정이입이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어머니가 타인지향 귀납과

31) 이순복(1993), 전계논문, p 17

32) 이신희(1997), 전계논문, pp 16~17

33) 이두현(1999), 전계논문, pp 14~15

34) 김지신(1985), “어머니의 훈육방법과 아동의 감정이입이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 45

자기지향 귀납의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고 권력주장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타인지향 귀납과 자기지향 귀납적 훈육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이 발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화용(1989)은 지역별 유아의 사회성숙도를 조사하였는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촌 유아보다 서울 유아가 남아보다는 여아가 사회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줌으로써 유아의 사회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³⁵⁾

남정자(1985)는 부모의 학력에 따른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서 학교에서의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 독립성, 내적 통제력, 다른 아동과의 상호작용 등의 항목에서 아버지의 학력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상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³⁶⁾

이봉선(1988)³⁷⁾은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도덕판단력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권력주장 훈육을 사용하는 것은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고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가 남아에게 권력주장 훈육방식을 여아에게는 설득적 훈육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남녀 모두에게 설득 훈육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정은경(1996)³⁸⁾은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의 관계연구에서 설득 훈육방식이 유아의 도덕 판단력과 높은 수준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설득 훈육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노원주(1989)³⁹⁾는 부와 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어머니가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을

35) 남정태(1995), 전계논문, pp 15~16.

36) 양진숙(1991), 전계논문, p 62.

37) 이봉선(1988), 전계논문, pp.92~93.

38) 정은경(1996), 전계논문, p 48

39) 노원주(1989), 전계논문, p.32

알 수 있다.

이영자(1989)⁴⁰)는 부모의 설득 훈육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동기와의 관계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리적인 제한설정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경우의 아동은 비교적 제한을 가하지 않고 일관성 없는 지도를 하는 부모의 자녀에 비하여 보다 높은 친 사회적 행동 동기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이성적인 지도를 빈번히 실행하는 경우의 아동은 가끔씩 실행하는 부모의 자녀에 비해 보다 친 사회적 행동 동기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부모가 합리적이고 설득적 훈육방식을 사용하면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 동기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본 결과 부모의 훈육방식이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설득 훈육방식을 취할 때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을 키워 줄 수 있는 바람직한 훈육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훈육방식을 권력주장과 설득 및 애정철회 방식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40) 이영자(1989), 전 계논문, p 41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과 부모로서 표집학교는 연구자가 임의로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A초등학교, B초등학교, C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총 600명의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친 사회적 행동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이해할 수 있어 친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에 적당한 연령이며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친 사회적 행동 특징이 뚜렷하게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를 각 1종씩을 사용하였다.

1) 부모의 훈육방식

부모의 훈육방식 검사도구는 Hoffman과 Saltzstein의 훈육이론과 Maccoby와 Martin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제작하여 이영자(1989)가 사용한 것으로서 20개 문항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2개의 문항을 제외한 18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용은 권력주장과 설득 및 애정철회 방식으로서 각 하위별 문항에 대해 신뢰도가 낮은 2개의 문항을 제외한 총 14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는 <표 1> 과 같다.

〈표 1〉 부모의 훈육방식 측정 문항 구성

하 위 요 인	관 련 문 항	Cronbach ' α
권력주장 요인	5, 6, 9, 12, 18	.51
설득적 요인	2, 8, 11, 14, 17	.62
애정철회 요인	3, 7, 10, 13, 15, 16	.63

2)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

이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 검사도구는 Eigenberg(1989)가 사용한 이타성 자기보고를 변안 기초하여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울 거쳐 양진숙(1991)이 사용한 “친 사회적 행동 검사”로서 모두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 α)는 .72이다.



3. 연구 절차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논문을 고찰하여 연구주제와 연구문제를 선정한다. 다음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로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검사를 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는 199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부적절한 문항들을 수정하여 본 자료수집은 1999년 11월 29일부터 12월12일까지 2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각 학급 담당교사에게 검사의 목적을 설명하여 실시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검사는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학급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부모의 훈육방식검사는 아동을 통하여 질문지를 부모에게 배부하여 각 가정에서 실시하여 다시 아동을 통하여 회수되었다. 각 학교별 200부씩 총 600부의

질문지를 아동과 부모에게 각기 배부하였다. 부모의 질문지 회수가 용이하지 않아 500부(회수율 83.3%)의 질문지만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 중 아동이 이중으로 응답한 것과 부모가 불분명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하여 자료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아동용과 부모용 각각 306매였다.

4.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써 던컨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훈육방식과 친 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써 던컨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하위요인별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크론바하의 알파계수(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 와 같다.

아버지의 연령별 분포는 41~45세가 4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6~40세 40.5%, 46세 이상 9.5%, 35세 이하는 2.3%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6~40세가 5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1~45세 20.9%, 35세 이하 14.7%, 46세 이상은 4.6%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과 대졸이 42.8%고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 8.2%, 중졸 2.0%, 국졸 1.3%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 63.1%, 대졸 25.5%, 중졸 7.5%, 국졸 2.9%, 대학원 이상 0.3%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행정관리사무직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생산단순노무직 19.9%, 판매직 15.4%, 전문기술직 11.4%, 농·어업 8.2%, 서비스직 6.5%, 무직 2%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직업을 가지지 않은 주부가 48.7%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직 19.3%, 서비스직 15%, 전문기술직 6.9%, 행정관리사무직 3.9%, 농·어업 3.3%, 생산단순노무직 1.3%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101만원~150만원 28.1%, 151만원~200만원 24.8%, 251만원이상 21.9%, 201만원~250만원 13.4%, 100만원이하가 11.8%로 나타났다. 종교분포는 불교가 50.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22.2%, 기독교 13.4%, 천주교 10.5%, 유교 2.0%, 기타 1.6%로 나타났으며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37.6%, 아파트 35.0%, 연립·빌라주택 21.2%, 기타 6.2%로 나타났다. 혼육담당자의 분포는 어머니가 6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 34.3%, 할아버지 1.6%, 할머니 1%, 기타 1.3%, 외할머니 0.3%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은 여아 53.9%, 남아 46.1%로 나타났으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4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둘째 23.9%, 막내 19.9%, 독자 3.3%, 셋째 2.3%, 기타 1.3%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변		수	빈도	백분율	변		수	빈도	백분율
아버지 연령	35세 이하	7	2.3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45	14.7	
	36~40세	124	40.5			36~40세	181	59.2	
	41~45세	137	44.8			41~45세	64	20.9	
	45세 이상	29	9.5			45세 이상	14	4.6	
계		297(100)		계		304(100)			
아버지 학력	국졸	4	1.3	어머니 학력	국졸	9	2.9		
	중졸	6	2.0		중졸	23	7.5		
	고졸	131	42.8		고졸	193	63.1		
	대졸	131	42.8		대졸	78	25.5		
	대학원이상	25	8.2		대학원이상	1	0.3		
계		297(100)		계		304(100)			
아버지 직업	전문기술직	35	11.4	어머니 직업	전문기술직	21	6.9		
	판매직	47	15.4		판매직	59	19.3		
	생산단순노무직	61	19.9		생산단순노무직	4	1.3		
	행정관리사무직	103	33.7		행정관리사무직	12	3.9		
	서비스직	20	6.5		서비스직	46	15.0		
	농어업	25	8.2		농어업	10	3.3		
	무직	6	2.0		주부	152	49.7		
계		297(100)		계		304(100)			
종교	불교	154	50.3	소득	100만원이하	36	11.8		
	기독교	41	13.4		101~150만원	86	28.1		
	천주교	32	10.5		151~200만원	76	24.8		
	유교	6	2.0		201~250만원	41	13.4		
	없음	68	22.2		251만원이상	67	21.9		
	기타	5	1.6						
계		306(100)		계		306(1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115	37.6	혼 유 담당자	할아버지	5	1.6		
	아파트	107	35.0		할머니	3	1.0		
	연립·빌라주택	65	21.2		외할머니	1	0.3		
	기타	19	6.2		아버지	105	34.3		
					어머니	188	61.4		
계		306(100)		계		306(100)			
아 동 성 별	남 여	141	46.1	출 생 순 위	첫째	151	49.3		
					둘째	73	23.9		
					셋째	7	2.3		
					막내	61	19.9		
					독자	10	3.3		
계		306(100)		계		306(100)			

2.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훈육방식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훈육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는 <표 3> 과 같다.

<표 3> 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범주를 분류하는데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부의 직업은 전문기술·행정관리직 및 판매·서비스직 그리고 생산·단순노무·농·어업으로 모의 직업은 직업을 가진 주부와 직업을 가지지 않은 주부로 분류하였다.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없음으로 구분하였고 소득은 150만원이하, 151~200만원, 201~250만원, 250만원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훈육담당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분류하였으며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이후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훈육방식에서는 권력주장 방식에서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훈육담당자에서, 설득 방식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부모의 교육수준 및 주거형태에서 그리고 애정철회 방식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연령, 부모의 직업, 소득 및 종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연령에서는 권력주장 방식에서 $p < .001$ 과 설득과 애정철회 방식에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권력주장과 설득 방식에서는 45세 이하 집단이 46세 이상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45세 이하의 어머니들이 권력주장과 설득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애정철회 방식에서는 40세 이하 집단이 46세 이상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나 40세 이하의 어머니들이 애정철회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서는 설득 방식에서만 $p < .00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졸이상 집단이 중졸이하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설득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는 권력주장방식에서 $p < .01$ 수준과 설득 방식에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권력주장 방식에서는 대졸이상 집단이 중졸이하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권력주장 방식을

〈표 3〉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훈육방식

변 수	집 단	권력주장 방식			설득 방식			애정철회 방식				
		M	F(t)	D	M	F(t)	D	M	F(t)	D		
부 의 연 령	35세 이하	4.25	.85		4.48	1.16		1.78	.66			
	36~40세	4.24			4.32			1.97				
	41~45세	4.27			4.42			1.96				
	46세 이상	4.08			4.28			1.56				
모 의 연 령	35세 이하	4.25	7.81***	a	4.31	3.68**	a	2.01	3.03**	a		
	36~40세	4.27			a			4.40			a	1.98
	41~45세	4.25			a			4.35			a	1.76
	46세 이상	3.52			b			3.90			b	1.61
부 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4.14	1.99		3.82	10.98***	b	2.08	1.70			
	고졸	4.17			4.27		a	1.98				
	대졸이상	4.31			4.47		a	1.85				
모 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4.03	4.16**	b	3.93	14.28***	b	2.06	1.28			
	고졸	4.21			ab		4.35	a			1.93	
	대졸이상	4.36			a		4.53	a			1.84	
부 의 직 업	전문기술·행정관리	4.27	.28		4.23	1.84		1.84	1.61			
	판매·서비스	4.24			4.37			2.01				
	생산·단순노무·농·어업	4.23			4.29			1.93				
모 의 직 업	유	4.16	-1.95		4.33	-.69		1.92	.01			
	무	4.29			4.37			1.92				
소 득	150만원 이하	4.20	1.54		4.30	.94		2.03	1.38			
	151~200만원	4.35			4.34			1.90				
	201~250만원	4.18			4.33			1.85				
	251만원 이상	4.17			4.44			1.84				
종 교	불교	4.25	.09		4.35	.64		1.92	1.43			
	기독교	4.24			4.41			1.86				
	없음	4.21			4.30			2.05				
주 거 태 형	단독주택	4.18	2.71		4.26	5.13**	b	1.89	.02			
	아파트	4.32			a		1.91					
	연립·빌라주택	4.13			b		1.90					
훈 육 담 당 자	아버지	4.13	-2.46**		4.27	-1.67		1.91	-.87			
	어머니	4.30			4.39			1.97				

1) ** p<.01, *** p<.001

2)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더 많이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설득 방식에서도 고졸이상 집단이 중졸이하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설득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양진숙(1991)⁴¹⁾의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자율-성취-사회성 지향적인 양육태도(설득 방식)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서동미(1996)⁴²⁾의 연구결과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애정적인 양육태도(설득 방식)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주거형태에서는 설득 방식에서만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파트에 사는 집단이 단독주택이나 연립 및 빌라주택에 사는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에 사는 부모들이 설득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훈육담당자에서는 권력주장 방식에서만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훈육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권력주장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훈육방식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라서 부모의 훈육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는 <표 4> 와 같다

<표 4> 에 의하면 아동의 성별에서는 부모의 훈육방식이 집단간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노원주(1989)⁴³⁾, 양진숙(1991)⁴⁴⁾, 이순복(1993)⁴⁵⁾, 정은경(1996)⁴⁶⁾, 이두현(1999)⁴⁷⁾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아동의 성별이 부모의 훈육

41) 양진숙(1991), 전계논문, p.88.

42) 서동미(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p.41

43) 노원주(1989), 전계논문, p.29.

44) 양진숙(1991), 전계논문, p.87.

45) 이순복(1993), 전계논문, p.45.

46) 정은경(1996), 전계논문, p.47.

47) 이두현(1999), 전계논문, p.65

〈표 4〉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훈육방식

성별 및 출생순위		권력주장 방식			설득 방식			애정철회 방식		
		M	F(t)	D	M	F(t)	D	M	F(t)	D
성 별	남	4.25	.61		4.38	.99		1.91	-.49	
	여	4.21			4.31			1.95		
출 생 순 위	첫째	4.27	6.13**	a	4.37	4.42**	a	1.96	3.58*	a
	둘째	4.32		a	4.45		a	2.02		a
	셋째이후	4.02		b	4.18		b	1.75		b

1) * $p < .05$, ** $p < .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봉선(1988)⁴⁸⁾의 연구결과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훈육방식은 아버지는 남아에게 권력주장 방식을 여아에게 설득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어머니는 남녀 모든 아동에게 설득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연희(1996)⁴⁹⁾의 연구결과에서 어머니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온정적이고 일관된 훈육(설득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에서는 권력주장 및 설득 방식에서 $p < .01$ 수준과 애정철회 방식에서 $p < .0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권력주장과 설득 및 애정철회 방식에서는 첫째와 둘째인 집단이 셋째이후 집단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첫째와 둘째 아동들에게 셋째이후 아동보다 권력주장과 설득 및 애정철회 방식을 더 많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두현(1999)⁵⁰⁾의 연구결과에서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훈육방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8) 이봉선(1988), 전계논문. p.92.

49) 권연희(1996), 전계논문. p.38.

50) 이두현(1999), 전계논문. p.65

4.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

변 수	집 단	친 사회적 행동			변 수	집 단	친 사회적 행동		
		M	F(t)	D			M	F(t)	D
부 의 연 령	35세 이하	2.96	.26		모 의 연 령	35세 이하	3.25	1.38	
	36~40세	3.15				36~40세	3.14		
	41~45세	3.15				41~45세	3.15		
	46세 이상	3.15				46세 이상	2.91		
부 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3.17	.67		모 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3.05	.97	
	고졸	3.11				고졸	3.13		
	대졸이상	3.18				대졸이상	3.21		
부 직 의 업	전문기술·행정관리	3.19	.77		모 직 의 업	유 무	3.11	-1.07	
	판매·서비스	3.09				3.18			
	생산·단순노무·농·어업	3.14							
소 득	150만원 이하	3.11	1.72		주 거	단독주택	3.14	.74	
	151~200만원	3.14				아파트	3.21		
	201~250만원	3.05				연립·빌라	3.11		
	251만원 이상	3.27				주택			
종 교	불교	3.21	2.07		훈 육 담 당 자	아버지	3.17	.50	
	기독교	3.05				어머니	3.14		
	없음	3.13							

<표 5> 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아동의 친 사회

적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남정태(1995)⁵¹⁾의 연구결과에서는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이 더 높게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친 사회적 행동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라서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은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는 <표 6> 과 같다.

<표 6>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친 사회적 행동

성별 및 출생순위		친 사회적 행동		
		M	F(t)	D
성별	남	3.14	-.17	
	여	3.15		
출생순위	첫째	3.16	.64	
	둘째	3.14		
	셋째이후	3.10		

<표 6>에 의하면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친 사회적 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이 친 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 성별이나 출생 순위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내적 요인이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양진숙(1991)⁵²⁾의 초등학교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연구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친 사회적 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1) 남정태(1995), 전개논문, pp 37~38

52) 양진숙(1991), 전개논문, p 89

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문혜정(1995)⁵³, 남정태(1995)⁵⁴, 서동미(1996)⁵⁵의 연구결과에서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황규홍(1993)⁵⁶, 정현희(1995)⁵⁷의 연구결과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 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부모의 훈육방식에서는 세 가지 하위요인에서 각 요인마다 평균값을 상(30%), 중(40%), 하(30%)로 구분하여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는 <표 7> 과 같다.

<표 7>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

훈육방식	친 사회적 행동	친 사회적 행동		
		M	F	D
권력주장 방식	상	3.29		a
	중	3.12	7.94***	b
	하	2.97		b
설득 방식	상	3.25		a
	중	3.15	4.92**	ab
	하	3.01		b
애정철회 방식	상	3.07		b
	중	3.07	5.12**	b
	하	3.28		a

1) ** $p < .01$, *** $p < .001$

2) D , Duncan' s Multiple Range Test

53) 문혜정(1995), 전계논문, p.44.

54) 남정태(1995), 전계논문, p.37

55) 서동미(1996), 전계논문, p.43

56) 황규홍(1993), 전계논문, pp.34~35

57) 정현희(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 정서반응,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제 16권 1호, 한국아동학회지, p.43

<표 7> 에 의하면 권력주장 방식에서는 $p < .001$ 수준에서, 설득과 애정철회 방식에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권력주장 방식에서 상 집단이 중·하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가 권력주장을 더 많이 선택하는 집단의 아동들이 이를 덜 선택하는 집단의 아동들보다 친 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설득 방식에서도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설득적인 훈육방식을 더 많이 선택하는 집단의 아동들이 친 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김지신(1985)⁵⁸⁾, 노원주(1989)⁵⁹⁾의 연구결과에서 어머니가 타인지향 및 자기지향(설득 방식) 훈육방식을 사용할 때 아동이 친 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진숙(1991)⁶⁰⁾, 서동미(1996)⁶¹⁾, 이신희(1997)⁶²⁾의 연구결과에서도 부모가 애정적·자율적·사회성 지향적일 때(설득 방식) 아동이 친 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철회 방식에서는 하 집단이 상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가 애정철회 방식을 덜 선택하는 집단의 아동들이 이를 더 많이 선택하는 집단의 아동들보다 친 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58) 김지신(1985), 전계논문, p.46.
59) 노원주(1989), 전계논문, p.32.
60) 양진숙(1991), 전계논문, p.92.
61) 서동미(1996), 전계논문, p.41.
62) 이신희(1997), 전계논문, p.41.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306명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제주도 초등학교 아동들이 어떠한 친 사회적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들은 어떠한 훈육방식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훈육방식에서 권력주장 방식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 및 훈육담당자에서 그리고 설득 방식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부모의 교육수준 및 주거형태에서, 애정철회 방식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 부모의 직업, 소득 및 종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연령에서는 권력주장과 설득 방식에서 45세 이하 집단이 46세 이상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45세 이하의 어머니들이 권력주장과 설득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음을 말할 수 있다 애정철회 방식에서는 40세 이하 집단이 46세 이상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나 40세 이하의 어머니들이 애정철회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40세 이하의 어머니들이 권력주장과 설득 및 애정철회 방식을 모두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서는 설득 방식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졸이상 집단이 중졸이하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설득방식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는 권력주장과 설득 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권력주장 방식에서 대졸이상 집단이 중졸이하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 집단이 중졸이하 집단보다 권력주장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설득 방식에서는 고졸이상 집단이 중졸이하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설득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과는 달리 어머니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권력주장과 설득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아동을 훈육함에 있어 어느 한가지 방식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과 설득이라는 두 가지 훈육방식을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주거형태에서는 설득 방식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파트에 사는 집단이 단독주택이나 연립 및 빌라주택에 사는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파트에 사는 부모들이 아동을 훈육할 때 설득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훈육담당자에서는 권력주장 방식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훈육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권력주장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라서 부모의 훈육방식에서 성별에서는 집단간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성별이 부모의 훈육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모들이 과거와는 달리 여아에게 더 이타적인 성향을 요구하기보다는 연령이나 상황에 적합한 이타행동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동의 출생순위에서는 권력주장과 설득 및 애정철회 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권력주장과 설득 및 애정철회 방식에서는 첫째와 둘째인 집단이 셋째이후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들이 첫째와 둘째인 아동들에게 셋째 이후의 아동보다 세 가지 훈육방식을 모두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은 어느 변인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분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친 사회적 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이 친 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 성별이나 출생순위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내적 요인이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는 권력주장과 설득 및 애정철회 방식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권력주장 방식에서는 평균값이 상 집단이 중 이하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가 권력주장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하는 집단의 아동이 친 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설득 방식에서도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나 부모가 설득적인 훈육방식을 더 많이 선택하는 집단의 아동이 친 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애정철회 방식에서는 하 집단이 중 이상 집단보다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가 애정철회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수록 아동이 친 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부모의 훈육방식에서 애정철회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한 훈육방식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결과에서는 설득방식에서만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는 권력주장과 애정철회 방식에서도 아동이 친 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추후에 더 연구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의 훈육방식에 따라서 아동의 사회성이 길러지고 변화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문제이며 가정과 학교의 연계성 있는 지도계획이 필요하며 훈육방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훈육방식 측정방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질문지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 측정방법이나 측정도구 개발에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권연희(199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경중외 11인(1999), 「아동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 김경희(1995), 「아동심리」, 서울: 박영사.
- 김광웅(1993), 「아동발달」, 서울: 형설출판사.
- 김광웅, 방은령(1998), 「아동발달」, 서울: 형성출판사.
- 김광웅,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제 19권 2호, 한국아동학회지.
- 김사달(1973), 「사랑의 육아교실」, 서울: 경지사.
- 김선숙, 이정덕(1988), “부모세대가 받은 훈육방법과 그들의 자녀 훈육방법과의 비교”, 제26권 3호, 대한가정학회지.
- 김정희외 12인(1997), 「아동발달심리」, 서울: 동문사.
- 김정희·김현주·정인숙(1997), 「아동발달심리」, 서울: 동문사
- 김지신(1985), “어머니의 훈육방법과 아동의 감정이입이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항규·최종후(1994), 「과학적방법론과 통계기법의 활용」, 서울: 자유아카데미.
- 남정태(1995), “국민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원주(1989), “부와 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현미, 박인전(1999),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간의 관계”, 제 20권 4호, 한국아동학회지.
- 문혜정(1995), “유아의 성별, 형제유무, 부모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경자(1999),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 제37권 1호, 대한가정학회지.

- 박성연, 도현심(1997), 「아동발달」, 서울: 동문사.
- 서동미(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봉연 역(1987), 「발달이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서봉연, 이순형(1983), 「발달심리학 - 아동발달 -」,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서정희(1996), 「가정학연구방법론」, 서울: 하우출판사.
- 손창열(1995), “사회성 훈련이 고립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현옥, 강문희(1996), “자신과 타인 이해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 조망수용 및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 17권 2호, 한국아동학회지.
- 양진숙(1991), “초등학교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윤진, 김인경 역(1988), 「아동기와 사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두현(1999),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감성지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봉선(1988),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도덕판단력 및 그 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순복(199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이순옥(1995), 「요인분석 I」, 서울: 학지사.
- 이신희(199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 사회적 행동 및 자아 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자(1989), “부모의 훈육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동기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옥형(1995), 「아동발달」, 서울: 집문당.
- 이옥형(1997), 「아동발달」, 서울: 집문당.
- 이완정(1996), 「행동연구분석기법」, 교육과학사

- 이은화, 김영옥(1999),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이재창, 최종후(1996), 「학술논문과 통계적 기법」, 자유아카데미.
- 이정덕(1998), 「아동학」, 서울: 수학사.
- 이해익(1999),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학현사.
- 유안진, 김연진(1998),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장희숙(1989), 「아동연구방법」, 서울: 창지사.
- 정현희, 최경순(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 역할, 정서반응,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제 16권 1호, 한국아동학회지.
- 정남대, 홍윤기 역(1973), 「세 살이면 이미 늦다.」, 서울: 경지사.
- 정도박외 2인(1996), 「부모-자녀관계」, 서울: 학지사.
- 정은경(1996), “어머니 훈육방식과 유아의 도덕판단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혜원(1992), “가정내의 아동학대, 훈육태도와 아동의 성격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희원, 김경연(1998), “가정 환경적 변인 및 아동 개인적 변인과 친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성과 연령에 따른 분석”, 제36권 11호, 대한가정학회지.
- 주정일(1979), 「아동발달학」, 서울: 교문사.
- 주정일(1989), 「아동발달학」, 서울: 교문사.
- 최경순, 정현희(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및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제33권 1호, 대한가정학회지.
- 채서일(1998),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학현사.
- 황규홍(1993), “아동이 성격,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Alfred L Baldwin. (1967).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N.Y.:John Wiley & Sons Inc.
- Bahr Weiss and Kenneth A. Dodge(1992)외 2인, “Some Consequences of Early Harsh Discipline: Child Aggression and a Maladaptive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 Child Development, Vol. 63. No.6,
December.

Chinni Chilamkurti, Joel S.Milner(1993), “Perceptions and Evaluations of Child Transgressions and Disciplinary Techniques in High-and Low-Risk Mothers and Their Children” , Child Development, Vol. 64. No.6, December.

Dale f. Hay(1999), “Prosocial Action in Very Early Childhood”,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40 No.6, July.

Daniel Hart, Suzanne Fegley(1995), “Prosocial Behavior and Caring in Adolescence: Relations to Self-Understanding and Social Judgment” , Child Development, Vol. 66. No.5, December.

Daniel K. Lapsley, 문용린 역(2000) , 「도덕심리학」 , 중앙적성출판사.

E.B.HurRock. (1972). Child Development. N.Y.:MoGrow Hill Book. Com.

H.W.Maier. (1969). Three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Contribution of E.H.Erikson, J.Piaget. & R.Sears. Revised Edt. Tokyo:Happer & Row.

Julia Krevans, John C. Gibbs(1996), “Parents’ Use of Inductive Discipline: Relations to Children’s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Vol 67 No.6, December

L.A.펠리, D.J.지쿨러, 이훈구 역(1983), 「성격심리학」 , 법문사.

Nancy Eisenberg(1995)와 3인, “Prosocial Development in Late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Vol. 66. No.4, December.

Nancy Eisenberg(1999)와 5인, “Consistency and Development of Prosocial Dispositions: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Vol. 70. No.6, December.

Nicki R. Crick, KennethA. Dodge(1996),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Vol. 67. No 3, December.

- P.H.Musseau, J.J.conger & J.Kagan. (1970).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Third. Edt. Tokyo:Happer & Row.
- P.M.Symonds. (1946). The Dynamics of Parent - Child Relationships.
N.Y.:Columbia Univ. Press.
- Robert L. Nix(1999)의 6인 , "Relation between Mothers' Hostile Attribution
Tendenci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e
Mediating Role of Mothers' Harsh Discipline Practices", Child
Development, Vol. 70. No.4, August.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Discipline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Kim Kyun-Hee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ang-Soon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discipline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s a result of change of structure and role of family and change of value, children have been becoming selfishness and have not considered other people. To make children grow toward prosocial direction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the necessity of a study on how prosocial behavior of children are appeared according to parental discipline at home has been increased. Moreover, the existing studies have not showed consistent results. Especially as there is few study on parental discipline and prosocial behavior of children in Chejudo, I think tha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The subject of study was 5th and 6th grade students of primary school who show relatively stable state on prosocial behavior and understand other people. The purpose of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parental discipline according to a change of social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demography. Therefore, by examining the difference i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ccording to parental discipline and difference in parental discipline according to the sex and the birth order, which is an inner factor of children, it helps not only to understand prosocial behavior of children but also to use it as a basic data in guiding children.

For this study, 600 questionnaire were carried to parents and 5th and 6th grade students of three primary schools in Cheju City. Among them, 306 were used as data.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PC program to estimated the frequencies, mean, percentage, t-test, One-Way ANOVA, were used to verif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 and Duncan's Multiple Test was used for verification.

The major finding are as follows

1) Considering the power assertion among parental discipline according to a parental social demography variables, there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ther's age and academic career, a person in charge of discipline. In the induction, there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the mother's age, parental academic career and residential form. In the love withdrawal,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ther's age. There had no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ather's age, parental job, income and religion variables.

In the mother's age, there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ower assertion and induction. A group under 45 years old showed high average than a group over 46 years old. In the love withdrawal, a group under 40 years old showed high average than a group over 46 years old.

In the father's academic career, there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duction. A group over high school graduate showed high average than a group under middle school graduate. In the mother's academic career, there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ower assertion and induction. In the power assertion, a group over college graduate showed high average than a group under middle school graduate. In the induction, a group over high school graduate showed high average than a group under middle school graduate.

In the residential form, there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just in the in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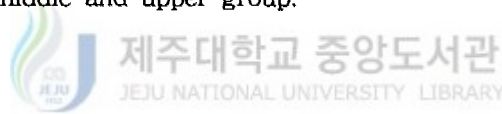
A group living in apartment showed high average than a group living in villa and independent residence.

In the person in charge of discipline, there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just in the power assertion. The power assertion was used more by mother

2) Considering discipline of parents according to the children's sex and birth order, there had no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ildren's sex. In the birth order, there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ower assertion, induction and love withdrawal. In the birth order first and second group showed high average than a group after third.

3) Prosocial behavior according to parental social demography variables and the children's sex and birth order had no a significant difference.

4)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discipline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ower assertion, induction and love withdrawal. In the power assertion, the upper group showed high average than lower and middle group. In the love withdrawal, the lower group showed high average than middle and upper group.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 가정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설문지는 부모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훈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 내용에는 정답이 없으며 부모님의 훈육태도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조사는 오로지 학문적 목적에만 이용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으며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질문에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김 경 희

※ 해당하는 난에 V표를 하거나 알맞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이 설문지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_____

2. 귀하의 가족 구조는?

① 대가족 ② 핵가족 ③ 기타_____

3. 귀하의 부부관계는?

① 부부모두생존 ② 부만생존 ③ 모만생존 ④기타_____

4. 자녀의 훈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한 분만 선택해 주세요.)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외할아버지 ④ 외할머니 ⑤ 아버지 ⑥어머니 ⑦기타_

5. 귀하 부부의 최종 학력은?

1) 아버지 : ① 무학 ② 국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이상

2) 어머니 : ① 무학 ② 국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이상

6. 귀하 부부의 연령은?

① 아버지 : 만 ()세 ② 어머니 : 만 ()세

7. 가정의 한달 평균 수입은?

① 100만원이하 ② 101만원~150만원 ③ 151만원~200만원

④ 201만원~250만원 ⑤ 251만원이상

8. 귀하의 종교는?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없음 ⑥ 기타_____

9. 귀하의 주거형태는?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빌라 ④ 기타_____

10. 귀하 부부의 직업에 V표를 해주세요.

구 분	내 용	부	모
전문·기술직	의사,약사,간호사,회계사,판·검사,교사,언론인,창작예술가,종교관계종사자		
판매직	도·소매업,판매외무원,경매인,보험·부동산 및 증권거래인,점원,판매원,감정인		
생산·단순노무직	운전사,금속·목재가공사,제조·용접공,장비조작공,인쇄공,화물취급인,전기·전자수리공		
행정·관리,사무직	공무원,회사원,기업체 종역,관리직 사원,기업가,속기사,경리		
서비스직	요식·숙박업,조리사,건물관리원,이발·미용사,환경미화원,안내원,장의사,가정부		
농·어업	농업,어업,수산업,축산업		
무직,주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모용 질문지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남·여

다음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다음을 읽어보시고 평소에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를 되도록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응해주신 대답은 이 연구자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 처리될 것입니다.

※ 다음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난에 ○표하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요구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들어주려고 한다					
2	나쁜 것을 했을 때 그 이유를 자녀에게 물어본다.					
3	말을 걸어오면 귀찮아 못 들은 체 한다.					
4	용돈을 다 쓰고 더 달라고 하면 필요한 만큼 더 준다					
5	정해진 취침시간을 지키도록 요구한다					
6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야단을 친다					
7	편식을 해도 그냥 둔다.					
8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9	식탁에서 장난을 하면 야단을 친다					
10	친척집 방문시 자녀가 그 집을 어지럽혀도 그냥 둔다					
11	버릇없이 반항할 때 공손하게 말하도록 가르친다					
12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야단을 친다					
13	밖에서 노는 시간이 지연되어도 그냥 놀게 한다.					
14	정해진 TV시청시간을 지키게 한다					
15	자녀의 의견을 무시해 버린다.					
16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려고 해도 그냥 둔다					
17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게 한다					
18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야단을 친다					

아동용 질문지

재미있는 글들이 많아요. 읽은 후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 다음 빈곳을 꼭 채워주세요.

학 교	초등학교			학년	반
이 름			성 별	남()	여()
연 령	만 세				
출 생 순 위	첫째()	둘째()	셋째()	막내()	독자() 기타()

※ 자기 생각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알맞는 란에 ○표하세요.

번호	문 항	전혀하지 않는다	한번한다	가끔한다	자주한다	항상한다
1	친구의 과제를 도와준다.					
2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3	친구에게 귀중한 물건을 빌려준다.					
4	어디에서든지 휴지나 빈 병이 있으면 쓰레기통에 넣는다.					
5	보답을 바라지 않고 친구를 도와준다					
6	신체장애자를 도와준다.					
7	길을 건너려고 하는 노인이 있으면 부축해 드린다.					
8	집에서 하기 싫은 일도 스스로 한다					
9	친구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내 것을 같이 나누어 쓴다					
10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더 받는다면 주인에게 나머지를 돌려줄 것이다.					
11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					
12	친구가 칭찬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준다.					
13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바쁜 사람에게 양보한다					
14	먹을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는다					
15	반 친구들을 즐겁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					

번호	문항	전혀하지 않는다	한번한다	가끔한다	자주한다	항상한다
16	부모를 잃고 우는 아이가 있다면 그 부모를 찾아 줄 것이다.					
17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준다					
18	친구가 별로 없는 아이와도 잘 놀아준다.					
19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20	아무리 바쁠 때라도 횡단보도로 길을 건넌다.					
21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준다.					
22	남을 돕기 위해 돈을 낸다.					
23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히 가르쳐준다					
24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사람을 도와준다					
25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양보한다					
26	매우 화가 난 사람을 달래준다.					
27	반 친구들을 못살게 구는 아이를 타 이른다.					
28	수재민 돕기에 참여한다					
29	다른 사람에게 꼭 돌려 받겠다는 마음 없이 물건을 준다.					
30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쾌하게 말을 해도 나는 온순하게 말한다.					
31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우리 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32	나의 일이 밀려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잘 도와준다					
33	차가 다니는 큰길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다면 집에 가서 놀라고 타이려 것이다					
34	교실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친구에게 주의를 준다					
35	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36	몸이 불편한 사람이 물건을 팔고 있으면 그 물건을 산다					